

PACKAGING NEWS



협회 · 회원사

- (사)한국포장협회 제274차 이사회 개최
- (사)한국포장협회 화성지역 모임 가져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 회의 개최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필름 대중소 협업 연구회 협약 체결
- (사)한국포장협회 플라스틱 봉투 품목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연장
-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호회 모임 가져
- (사)한국포장협회 6월 16일 포장인 특강 개최
- (주)신명팩 (사)한국포장협회 신입회원 가입
- 동원시스템즈 저탄소 '녹색기술제품' 판매 돌입
- 동원시스템즈 무균충전음료 사업 확대하기 위한 제2공장 신설
- SKC 비와이엔블랙야크와 친환경 소재 생태계 강화 맞손
- 오리온 2022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532억, 영업이익 1086억 기록

업계

- 환경부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강화
-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연포장재의 단일재질 변화와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 (사)한국포장기술사회 6월 16일 친환경 포장 세미나 개최
- LG화학-KIST 공기 중 이산화탄소로 플라스틱 원료 만든다
- LG화학 와이솔루션 'iF 디자인 어워드' 패키지 디자인 본상 수상
- CJ제일제당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PHA' 본 생산 개시
- CJ제일제당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인증 획득
- DL케미칼 폐플라스틱 원료 55% 함량 포장백 수출



(사)한국포장협회

제274차 이사회 개최

(주)신명팩 회원 가입 승인 등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5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74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회 30주년사 발간,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선정 협정 체결,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약,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해외 전시 참가 및 참관, 지역모임 활성화, 신입회원 가입, 친환경(ESG)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회원수첩 제작, 포장인포럼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30년사 제작과 관련하여 임경호 회장이 총괄하며 위원장 김창순 수석부회장, 부위원장 신정열 부회장이 편찬을 주관하기로 했다.

또한 (주)신명팩 가입 승인, 수첩 제작, 지역모임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정 체결, 친환경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약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해외전시 참가 및 참관, 포장인 포럼은 7월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협회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해나갈 계획이다.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5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74차 이사회를 가졌다.



(사)한국포장협회 제274차 이사회 결과 보고

- | | |
|---|---|
| <p>1.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진행보고
- 하반기 교육 참가 독려</p> <p>2. 협회 창립 30주년사 제작 진행의 건
- 과거, 현재, 미래가 잘 어우러지도록 내용 편집
- 가제본 제작해 7월 이사회 보고</p> <p>3.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정 체결 및 진행보고
- 회원사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 진행 시 상세하게 설명하
고 진행</p> <p>4. 협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약의 건
- 대기업 확장 고려</p> | <p>5. 지역 모임 활성화 방안 논의
- 지역장 중심의 모임 적극 권장</p> <p>6.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참관단 파견의 건
- 현지와 국내 상황 파악 후 결정</p> <p>7. 신입 회원 가입 심의
- (주)신명팩 가입 승인</p> <p>8. 기타사항
- 회원 수첩 제작 : 원안대로 승인
- 포장인포럼 : 7월 이사회 결정
- 친환경(ESG)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보고 : 원
안대로 승인</p> |
|---|---|

(사)한국포장협회

화성지역 모임 가져

회원간 교류 확대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 화성지부(지부장 김보철) 모임이 지난 5월 3일 화성지역 음식점에서 있었다.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 화성지부(지부장 김보철) 모임이 지난 5월 3일 화성지역 음식점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11개 업체가 참석하여 화성 지역 업체 간 정보교류 확대와 비회원을 회원으로 영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화성지역 모임은 정기적인 모임과 회원사 방문, 운동 등의 비정기적 모임을 지속하



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임을 갖지 못해 교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갖기로 입을 모았다.

화성지역 모임은 협회 내 우수 운영 지역으로 꼽힌다.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 회의 개최

회원 간 협력 및 정보 교류 강화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위원장 김창순)가 지난 5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올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원자재의 지속적인 급등과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사용자 측의 소극적인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와 함께 협회 30년사 제작, 일생활 균형 워라벨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다.

분과위원회는 전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비전을 위해 회원 간 적극적인 협력과 정보 교류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위원장 김창순)가 지난 5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회원사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회원사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필름 대중소 협업 연구회 협약 체결

환경관련 포장 제품 개발 연구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와 대중소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연포장용 필름 대중소 협업 연구회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과 연구 아이템을 발굴하여 대기업의 소재 개발, 중소기업의 제품 적용을 통해 판매력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5개의 발굴과제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도모하고 내수 및 수출시장을 확대해나가고, 해외 바이어 발굴을 통한 마케팅 및 상담회도 운영한다.

협회는 회원사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한국포장협회

플라스틱 봉투 품목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연장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해 연포장산업 발전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와 플라스틱 봉투 품목 상생협약을 연장했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포장협회를 비롯해 (주)에스피씨팩, (주)동서, 동원시스템즈(주), 롯데알미늄(주), 삼아알미늄(주), 희성폴리머(주), (주)원지, 율촌화학(주) 등 8개 회원사가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봉투 품목(연포장)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포장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과도한 경쟁 자제, 중소기업의 경영 및 품질관리 자문 등을 통해 상생협력을 하고, 중소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스로 노력함과 더불어 대기업과 공동 연구, 품질 개선 등 협업을 적극 모색한다.

또한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포장협회는 상생협력을 위한 '연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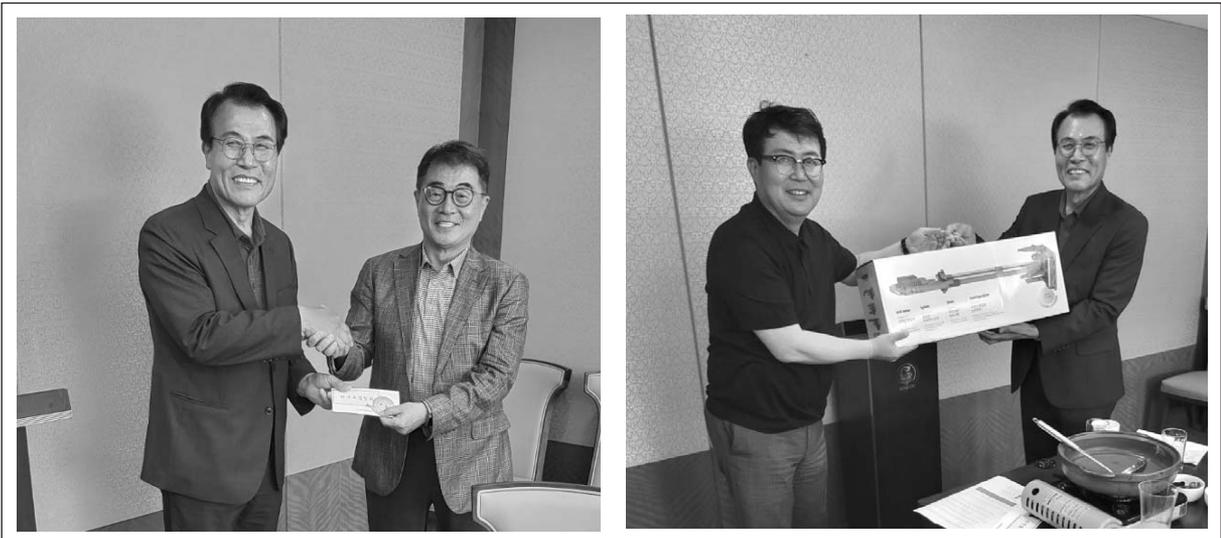


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이번 상생협약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지된다.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호회 모임 가져

협회 사업 선도하고 동참키로



▲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호회(회장 신정열)가 지난 5월 25일 용인 골드CC에서 골프동호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우승은 김창순 (주)남경 대표이사가 했고, 메달리스트 우병윤 (주)에이앤피 대표이사, 니어리스트 이승배 (주)이콜테크를 대표이사, 롱기스트 이지수 (주)유림원색 이사가 차지했다.

(사) 한국포장협회 골프동호회(회장 신정열)가 지난 5월 25일 용인 골드CC에서 골프동호회 모임을 가졌다. 신정열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야외 활동이 가능해져 건강한 모임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선창 회장이 참석하여 신규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교류와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협회 사업을 선도하고 협력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동호회에서는 이병찬 (주)대진화학 대표이사가 협찬한 청소기를 우병윤 메달리스트에게 시상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협찬품이 있을 경우 당월 모임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운동 결과로 홍기정 (주)유한팩 상무와 임재윤 세미산업(주) 전무가 이글을 기록해 6월 모임에서 이글패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우승은 김창순 (주)남경 대표이사, 메달리스트 우병윤 (주)에이앤피 대표이사, 니어리스트 이승배 (주)이콜테



크롤 대표이사, 롱기스트 이지수 (주)유림원색 이사가 차지했다.
골프동호회 6월 모임은 22일에 있다.

(사)한국포장협회

6월 16일 포장인 특강 개최

일과 행복의 균형적인 삶의 방법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일과 행복의 균형적인 삶의 방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협회는 포장업체의 워라벨 도입과 확산을 위해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간담회를 지난달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가졌다. 협회는 오는 6월 16일 킨텍스 제1전시장 세미나실(213호)에서 (사)한국포장기술사회와 협력해 ‘친환경 포장 전환시대의 포장재 변화와 대응’ 세미나와 ‘일과 행복의 균형적인 삶의 방법’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팩 전시회 기간에 열려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신명팩

(사)한국포장협회 신입회원 가입

각종 연포장재 제조

주식회사 신명팩(대표이사 김철호)이 (사)한국포장협회의 신입회원사로 가입했다. 신명팩은 1993년 창립 이래 30여 년간 식품, 생활용품 등 각종 연포장재를 제조하고 있다. 신명팩 관계자는 “주식회사 신명팩은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사훈 하에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돼 식품류, 제

(주)신명팩

주소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14번길 115
주요생산품목 : 그라비아인쇄 포장지
TEL : 031-637-4010 FAX : 031-637-4085
홈페이지 : www.smpack.co.kr



약류 및 세제류의 포장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며 “2005년부터 레토르트 파우치 제품으로 생산 영역을 넓히는 등 신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에 매진해온 결과 업계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회원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공성기업(주)
1981년 6월 20일 창립 41주년

[주]삼성인크
1977년 6월 21일 창립 45주년

삼아알미늄(주)
1969년 6월 25일 창립 53주년

[주]서일
2010년 6월 1일 창립 12주년

신성이노텍(주)
1986년 6월 창립 36주년

[주]에이치피엠글로벌
1984년 6월 19일 창립 38주년

위더스케미칼(주)
1999년 6월 24일 창립 23주년

[주]케이팩
2008년 6월 25일 창립 14주년

[주]필맥스
2003년 6월 1일 창립 19주년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원시스템즈

저탄소 '녹색기술제품' 판매 돌입

고기 변색, 세균 증식 막아...친환경 포장기술 기대



▲ 동원시스템즈가 '저탄소 녹색기술제품' 포장재의 판매에 돌입하고 친환경 포장재 시장 선도에 나선다.

동원시스템즈(소재사업 부문 대표이사 장성학)가 화학적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저탄소 '녹색기술제품' 포장재의 판매에 돌입하고, 친환경 포장재 시장 선도에 나섰다. 5월 12일 밝혔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11월 메탄올 등 화학적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무용제(non-solvent) 합지' 포장지 제조 기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 10개 품목군 130여 개 포장재에 친환경 녹색기술을 적용해 4월 녹색기술제품으로 정식 등록을 완료했으며 판매를 시작했다.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기존 공정은 이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전력 소모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반면, '무용제 합지' 공정은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평균 85%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원시스템즈는 연간 40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30년령 소나무 약 6,000그루를 심는 환경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원시스템즈는 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 소비재 전반의 포장재를 생산하는 국내 1등 종합 포장재 기업으로, 2019년 국내 최초로 종이 기반의 생분해 파우치 '에코소브레(Eco-Sobre)'를 출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포장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원시스템즈는 2월 세계포장연맹이 선정하는 포장기술 최고 권위상 '2022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동원시스템즈 장성학 소재사업부문 대표는 "앞으로도 친환경 포장재 기술 개발과 제품 인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친환경 포장재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1위 포장재 전문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시스템즈

무균충전음료 사업 확대하기 위한 제2공장 신설

5,300평 부지에 약 800억 투자

동원시스템즈(패키징 사업 부문 대표 서범원)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무균충전음료(Aseptic)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 횡성 우천산업단지 내에 무균충전음료 제2공장을 신설한다고 5월 18일 밝혔다.

동원시스템즈는 18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횡성군과 무균충전음료 제2공장 신설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중기 횡성군수권한대행,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서범원 동원시스템즈 패키징사업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 5,300평 부지에 약 8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부터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무균충전음료 제2공장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며, 강원도와 횡성군은 관련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균충전 공법은 초고온으로 살균한 음료를 외부 균의 침입이 불가능한 무균설비를 통해 페트에 담은 공법으로, 음료가 위생적이며 장시간의 열처리 공정이 없어 원료 고유의 맛과 영양소를 살릴 수 있다. 곡물음료, 유가공 음료 등 유통 중 균이 발생할 수 있는 음료를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일반 페트 음료



▲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서범원 동원시스템즈 대표, 안중기 횡성군수 권한대행이 횡성 제2공장 신설 투자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 비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20%가량 적어 친환경적이다.

동원시스템즈는 2018년 2월부터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무균충전음료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약 1,4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약 2억 9,000만 병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제1공장을 준공했다. 제1공장은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검증된 차별화 설비와 기술을 들여와 업계 최고의 품질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동원시스템즈의 무균충전음료사업은 2021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150% 상승한 536억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해왔다. 동원시스템즈는 이번 제2공장 신설을 통해 2026년까지 연간 약 4억 6,000만 병 생산이 가능한 무균충전음료 생산기지로 발전시켜 연간 1,300억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서범원 동원시스템즈 패키징 사업 부문 대표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고객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무균충전음료사업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C

비와이엔블랙야크와 친환경 소재 생태계 강화 맞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친환경 문화 확산’ 협약

SKC(대표이사 박원철)가 글로벌 아웃도어기업 비와이엔블랙야크(이하 블랙야크)와 친환경 소재 산업 생태계 강화와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SKC와 블랙야크는 5월 25일 서울 서초구 블랙야크 본사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우수한 소재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원철 SKC 사장,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등 각 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SKC와 블랙야크는 각자 역량을 결합해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소재 기반 제품 개발에 협력한다. SKC는 PET병과 함께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 ‘에코라벨’과 고강도 생분해 PBAT, 생분해 라이멕스(LIMEX) 등 다양한 생분해 소재를 사업화하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블랙야크는 수거한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제품 ‘플러스틱(Plustic)’을 출시하는 등 플라스틱 자원순환에 노력하고 있다.

블랙야크는 SKC의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플랫폼’에도 참여해 대한민국 소재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 오픈플랫폼은 SKC가 2017년부터 소재분야 유망 스타트업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공학한림원 등 각 분야 대표 전문기관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공유 인프라다. 블랙야크는 친환경 소비재 B2C 전문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의 친환경 소재 사업화를 지원한다.

친환경 문화 확산에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SKC의 친환경 플라스틱 플랫폼 ‘마이 그린 플레이스’를 국내 최대 규모 산행 커뮤니티 플랫폼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BAC)’의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 SKC는 5월 25일 글로벌 아웃도어 기업 비와이엔블랙야크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원철 SKC 사장(오른쪽)과 강태선 비와이엔블랙야크 회장이 협약서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양사는 쓰레기를 수거하며 등산하는 BAC 산행프로그램 '클린마운틴'에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마이 그린 플레이스를 접목해 보다 정확한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해나간다.

이 외에도 양사는 SKC 사업장에 페트병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거한 페트병으로 유니폼을 제작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 등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친환경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SKC 관계자는 "SKC의 친환경 소재 기술 경쟁력에 블랙야크의 친환경 소비재 역량을 더한다면 더 나은 제품, 더 튼튼한 친환경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ESG 소재 솔루션을 만들고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온

2022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532억, 영업이익 1086억 기록

중국 · 러시아 법인, 매출과 이익 동반성장

오리온그룹은 사업회사 오리온이 2022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532억 원, 영업이익 1,086억 원을 기록했다고 5월 16일 밝혔다.

경쟁력 높은 신제품 출시와 영업력 강화로 전 법인들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글로벌 통합 구매를 통한 효율적 원가 관리, 지속적으로 펼쳐온 효율과 수익 중심의 경영 효과에 힘입어 6.5% 성장했다. 그룹 차원의 유동성도 1,000억 원가량 개선됐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법인은 비우호적인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제품 생산과 영업활동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하며 실적 하락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국 법인은 매출이 10.6% 성장한 2,197억 원, 영업이익은 3.2% 감소한 342억 원을 기록했다. ‘꼬북칩 스윗 바닐라맛’, ‘대왕 오!감자’ 등 스낵 신제품이 연달아 히트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저장간식’ 소비 트렌드 속 ‘촉촉한초코칩’, ‘카스타드’ 등 대용량 규격 제품이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영업이익은 9년째 가격 동결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재료비 등 제조원가 및 물류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감소했다.

올해 한국 법인은 시장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스낵, 과자 등 차별화된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채널 내 매대 확대 전략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오!그레놀라 등 마켓오네이처의 라인업 확장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간편대용식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닥터유 브랜드에서는 영양과 건강이 강조된 기능성 식품들을 다양하게 출시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음료사업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닥터유 제주용암수’와 ‘닥터유 면역수’의 소비자 대상 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치고, 판매처를 확장해 외형 성장을 도모하는 등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주요 원재료 가격 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합구매를 강화하고, 에너지비용, 물류비, 영업비 등 전사 차원의 총원가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중국 법인은 매출액이 1.1% 성장한 3,052억 원, 영업이익은 6.4% 증가한 495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봉쇄 영향 속에서도 스낵, 젤리 등 신제품 입점이 확대되며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영업이익 또한 불확실한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정 및 영업인력 구조 효율화 등 내부 비용 통제 노력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상하이 공장은 현재 기존 대비 80% 수준으로 가동률을 회복했으며, 랑팡, 광저우, 셴양에 위치한 생산공장은 모두 정상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코파이 등 파이프류 제품이 중국 내 생활필수품으로 지정되고, 원활한 물류·영업활동으로 제품 출고량이 증대되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올해 중국 법인은 제품력과 영업력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펼쳐가고 있다. 파자와 스낵에서 신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그레놀라 제품을 새롭게 선보이고 양산빵과 함께 현지 간편대용식 시장을 공략하는 등 신규 카테고리도 적극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남부지역 시장을 개척하고, 채널별 전용 제품을 확대하는 등 매대 점유율을 늘리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급성장하는 신유통채널인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융합 유통) 플랫폼 등도 적극 공략해 매출 성장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베트남 법인은 매출액이 23.7% 성장한 1,025억 원, 영업이익은 18.6% 성장한 186억 원을 달성했다. ‘초코파이’, ‘카스타드’, 양산빵 ‘쨍봉’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며 매출을 견인했다. 쌀과자 ‘안’은 새롭게 출시한 감자치즈맛의 인기에 힘입어 현지 쌀과자 시장 내 점유율을 25%대까지 끌어올리며 성장을 뒷받침했다. 효율화된 비용 구조 속에서 매출이 늘수록 이익이 극대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며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는 18%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발판으로 시장 점유 확대에 주력하며 베트남 1위 종합식품기업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시장 선도 카테고리인 파이 및 스낵의 제품군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며, 생산량 증대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현지에서 일고 있는 건강 트렌드에 발맞춰 그레놀라 제품을 선보이는 등 간편대용식 시장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러시아 법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30.9% 성장한 303억 원, 영업이익은 6.9% 성장한 39억 원을 기록했다.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가며 공장가동률이 150%대에 이르는 등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2분기부터는 현지 물가상승에 따라 지난 4월 단행한 가격인상 효과가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국 법인을 통한 원부재료 조달 등 공급망을 다양화하며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가고, 비스킷 제품의 유통채널 확대와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로 매출 성장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차별화된 제품력과 효율 및 수익 중심 경영의 체질화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제품력 강화 등 업의 본질에 충실하고 비효율 제거를 통한 전사 차원의 원가 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강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이들 제품 15종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이 2008년부터 환경부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등 이 과정에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2022년도에는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2종이, 2023년도에는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 등 13종이 추가된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용 필름의 출고

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은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 의무율은 올해 안으로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재활용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라면서 “재활용 의무 품목 확대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연포장재의 단일재질 변화와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JK머티리얼즈의 친환경 단일재질 ‘BOPE’ 소개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이한영)가 4월 28일 서울시 강남구 성동타워 세미나실에서 ‘연포장재의 단일재질 변화와 대응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이한영)가 4월 28일 서울시 강남구 성동타워 세미나실에서 ‘연포장재의 단일재질 변화와 대응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은경 한국환경공단 제품EPR운영부 과장, 이한영 (사)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 민경웅 JK머티리얼즈 대표이사가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고 있다(왼쪽부터).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은경 한국환경공단 제품EPR운영부 과장의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개정’, ▲이한영 (사)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의 ‘연포장재 재활용 현황과 유럽 순환경제(CEFLEX) 및 설계 가이드라인(D4ACE)의 소개’, ▲민경웅 JK머티리얼즈 대표이사의 ‘국내 연포장재 단일재질 개발 현황 및 전망’ 등의 발표가 있었다.

노은경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지난 2월 28일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이 개정됐다.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재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기업들은 9월 30일까지 EPR등록 시스템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라며 개정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한영 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은 “연포장재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라며 “연포장재의 경우 사용 후 소각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 리사이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재질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단일재질 연포장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민경웅 JK머티리얼즈 대표이사는 현재 개발 중인 BOPE에 대해 소개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필름 제조사가 제대로 된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고 시장에 제공해야만 한다.

이번 BOPE필름 개발은 순환경제 이행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 대표이사는 “이번에 소개한 BOPE는 7월부터 양산되는데, 양산화 후에도 연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BOPE의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개발해 레토르트포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물성을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한국포장기술사회

6월 16일 친환경 포장 세미나 개최

킨텍스 제1전시장 213호에서 열려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이한영)가 6월 16일 킨텍스 제1전시장 213호에서 ‘친환경 포장 전환시대의 포장재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개정(2022.2.28.) 내용, ▲연포장재 재활용 현황과 해외 단일재질 포장 개발 및 적용 현황, ▲연포장재를 위한 CEFLEX와 D4ACE의 소개, ▲국내 연포장재의 단일재질 개발 현황 및 전망, ▲디지털워터마크(스냅태그)의 포장재 적용방안, ▲종이테이프 현황과 친환경성 분석, ▲EL103(환경표지) 종이테이프 개요 및 특성 등이 발표된다.

친환경 세미나는 10만 원(교재대 및 기념품 포함)이고 세미나 관련 문의는 (사)한국포장기술사회(healppy@naver.com)로 하면 된다.

한편 'KOREA PACK 2022' 전시 기간 중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한국포장협회의 '일과 행복의 균형적인 삶의 방법' 포장인 특강도 진행된다. 포장인 특강은 무료(교재 무료)이다.

LG화학-K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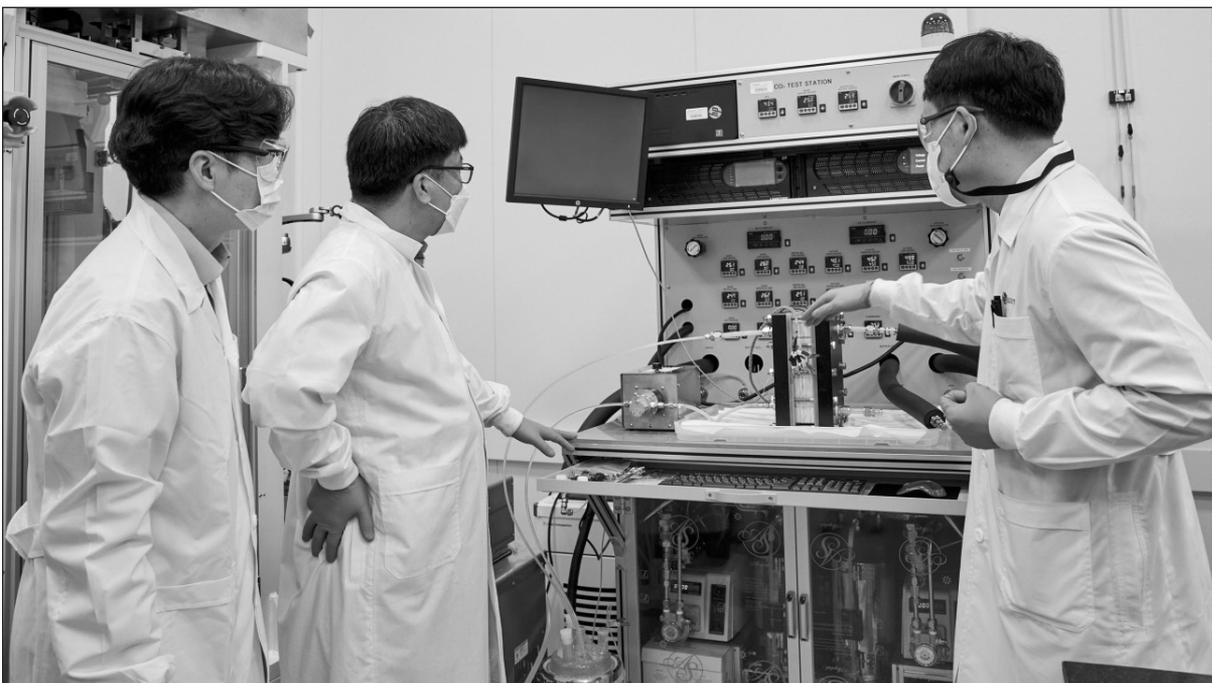
공기 중 이산화탄소로 플라스틱 원료 만든다

CO₂를 CO로 전환하는 전기화학 전환 반응기 개발

LG화학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이산화탄소(CO₂)를 일산화탄소(CO)로 전환하는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전기화학 전환 반응기를 개발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일산화탄소는 합성가스, 메탄올 등 대체 연료와 플라스틱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고부가 물질이다.

전기화학적 전환기술은 전기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등 부가가치가 높은 탄소화합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대기 중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이다.



▲ LG화학 연구원들이 신규 개발한 반응기를 살펴보고 있다.

LG화학과 KIST가 이번에 개발한 반응기는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각종 연료 및 화합물의 원료인 합성가스(Syngas)도 만들 수 있다.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비율을 전압 조절로 손쉽게 제어해 다양한 종류의 합성가스 제조가 가능한 것은 물론 기술 확장이 쉽다. 특히 일산화탄소 분해 및 환원에 사용되는 전류 효율이 90% 이상으로 지금까지 논문으로 보고된 수치 중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반응기 내 셀을 옆으로 쌓는 스택(Stack) 공법을 적용해 현존하는 전기화학적 반응기 중 상업화를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모를 구현했다.

LG화학과 KIST는 이번에 개발한 반응기의 크기를 10배 이상으로 더 키워 실제 양산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공기 중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해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에틸렌(C₂H₄)까지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LG화학 CTO 유지영 부사장은 “이번 연구 성과는 KIST와 함께 이산화탄소 전환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미가 크다”며 “탄소중립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ST 청정신기술연구본부 민병권 본부장은 “전기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전환기술의 규모화를 통해 고부가 화합물의 대량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며 앞으로 국가적 의무인 탄소중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과 KIST는 지난해 4월 탄소중립 및 수소 에너지 등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망 탄소중립 기술 과제 10개를 도출했다.

올해 4월에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에틸렌의 전기화학적 생산 기술’과 ‘바이오매스 및 부생가스를 활용한 유기산의 생물학적 생산 기술’ 이전을 위한 공동연구실을 출범했다.

LG화학 와이솔루션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과감한 붓놀림을 적용한 그래픽 요소

LG화학은 히알루론산 필러 브랜드 ‘이브아르 와이솔루션’이 ‘iF 디자인 어워드 2022’ 뷰티·건강부문에서 패키지(포장) 디자인 본상을 받았다고 5월 6일 밝혔다.

1954년부터 시작된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에서 필러 제품으로 패키지 디자인상을 획득한 것은 LG화학 ‘와이솔루션’이 처음이다.

LG화학은 당당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MZ 세대를 겨냥해 과감한(Bold) 선을 주요 디자인 요소로 채택해 3개 제품의 기능을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시각화했다. LG화학의 와이솔루션은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검은색을 공통 컬러로 적용해 이와 대비되는 디자인 포인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 LG화학 히알루론산(HA) 필러 ‘와이솔루션’ 3종

iF 디자인은 심사평으로 과감한 붓놀림을 적용한 그래픽 요소를 통해 당당하고 젊은 이미지로 브랜드를 재탄생시켰다고 밝혔다.

LG화학은 필터 기술을 고려하는 고객 연령대가 20·30세대로 확장됨에 따라 고객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철학을 패키지 디자인에 담고자 고객 심층 인터뷰와 서베이를 사전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객 각자의 매력에 대한 자신감, 미용 기술에 대한 당당함과 개방성이 대표적인 특징인 것으로 분석됐다.

LG화학 와이솔루션 디자인 담당자는 “능동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20·30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첫 인상인 패키지 디자인은 중요한 소구 포인트가 된다”며 “고객이 추구하는 미의 요소인 자신감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레드 닷(Red Dot Award)’, 미국의 ‘IDEA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며, 매년 다양한 부문의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해 4월 의료진의 섬세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재질로 손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주사기를 적용한 와이솔루션을 리뉴얼 출시한 바 있다.

CJ제일제당

해양생분해플라스틱 PHA' 생산

2025년 생산규모 6만 5,000톤까지 확대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 대량생산을 시작

했다. 이와 함께 생분해 소재 전문브랜드 'PHACT'를 선보이며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CJ제일제당은 인도네시아 과수루안 바이오공장의 전용 생산라인에서 PHA 양산을 시작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비결정(非結晶)형 aPHA(amorphous PHA)를 연간 5,000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 아울러 반결정(半結晶)형 scPHA(semi crystalline PHA) 생산라인 착공에 돌입, 2025년에는 PHA 생산규모를 연간 6만 5,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CJ제일제당은 상업성이 높은 aPHA와 scPHA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최초의 기업으로, 향후 사업확장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현재 CJ제일제당 외에 PHA 양산이 가능한 대니머 사이언티픽(미국), 카네카(일본) 등의 기업은 scPHA만 만들 수 있다.

PHA 본 생산 개시에 맞춰 생분해 소재 전문브랜드 'PHACT(팩트)'도 론칭했다. PHA와 '행동'을 뜻하는 ACT를 합친 단어로, 'PHA를 기반으로 친환경 생분해 소재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PHA는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에 쓰이게 되므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를 통해 생분해 소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유래 성분을 먹고 세포 안에 쌓아놓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과 해양을 비롯한 대부분 환경에서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기존 생분해 소재들은 제한된 환경에서만 분해되거나 친환경적이지 않은 석유화학계열 원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 PHA는 바이오 원료로 만들고 바닷물에서 100% 생분해되기 때문에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소재로 활용된다. 특히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향후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 소재로 평가 받는다.

CJ제일제당이 생산에 주력할 aPHA 제품은 고무와 비슷한 부드러운 물성을 지닌다. 이를 활용해 포장재나 비닐봉투 등 변형이 필요한 여러 품목을 만들 수 있다. 다른 경쟁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결정형 (crystalline, cPHA) 또는 반결정형 scPHA 제품은 딱딱한 물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aPHA와 혼합하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PHA를 단일소재뿐 아니라 이른바 '플랫폼'으로 활용해 경쟁력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PHA는 PLA나 PBAT같은 다른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와 혼합해 강도와 물성, 생분해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국내 합성수지 컴파운딩 가공 1위 기업 HDC현대EP(Engineering Plastics)와 바이오 컴파운딩 합작법인(JV)을 설립한 것도 그 일환이다.

향후 시장 전망도 밝다.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5조원에서 2025년 약 16조원으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플라스틱을 줄이고 친환경 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규제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카콜라와 펩시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수년 내 기존 포장재를 생분해나 비료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교체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수백 조원에 이르는 1회용·범용 플라스틱 시장이 친환경 소재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본 생산 전부터 글로벌 대형 거래처를 중심으로 5천 톤 이상의 계약이 성사될 정도로 CJ제일제당 PHA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

폐기물매립제로(ZWTL) 인증 획득

UL, 충북 진천공장 폐기물 재활용률 99.46% 인정

CJ제일제당이 사업장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경영(ESG) 강화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글로벌 환경·안전 인증기업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이하 ZWTL)' 골드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은 기업의 자원순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글로벌 인증회사인 UL이 검증을 한다.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실버(90~94%), 골드(95~99%), 플래티넘(100%)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에 골드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스팸, 햄·소시지 등을 생산하는 충북 진천공장으로, 폐기물 재활



▲ CJ제일제당은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글로벌 환경·안전 인증기업 UL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 골드등급을 획득했다. 골드등급을 획득한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의 모습.

용률 99.46%를 인정받았다. 진천공장은 제품 생산 후 부산물로 발생한 비지 등의 활용가치를 높여 환경부로부터 순환자원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식품 폐수처리 이후 발생하는 탈수케익(오염 침전물)은 토질개선 등에 사용되는 퇴비로 제조해 농업 생산활동에 사용된다. 비닐이나 플라스틱류도 연료로 재사용하거나 합성수지(펠릿)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식품기업이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을 받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업계 특성상 부산물의 자원화, 순환자원 인증 획득, 재활용 수요처 발굴 등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 LG 등이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CJ제일제당은 진천공장 외에도 국내 5개 사업장에서 재활용률 90%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203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의 매립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 기부 및 재활용을 확대해 식품 손실·폐기량도 50% 감축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폐기물이 다시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품 개발과 솔루션 확대로 지속가능 경영(ESG)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DL케미칼

폐플라스틱 원료 55% 함량 포장백 수출

재활용 원료 55% 이상 포장백 개발

DL케미칼이 수출용 제품 포장재에 재활용 원료가 55%이상 사용된 포장백을 쓰기로 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 현재 해당 포장백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

조) 선도기업으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활용 포장백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원료로 환원하고 새 원료를 섞어 만든다. 일반적으로 새 원료 비율이 70%인데 DL케미칼은 재활용 원료 사용률을 55.6%로 올렸다. 세계 최고 수준이란 전언이다. DL케미칼 독자 기술에 차세대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제품인 D.FINE을 적용한 것이 비결이다. D.FINE은 기존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제품 대비 질감성과 강직성이 향상돼 기존보다 더 튼튼하면서 두께는 25% 얇은 포장백 생산이 가능하다.

이를 국내 산업용 포장백 시장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 5,000t 이상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공성과 열융합성 등을 바탕으로 포장백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까지 절감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에서 친환경 기준이 가장 엄격한 유럽시장은 이미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은 4월 1일부터 플라스틱 포장재 제도가 시행됐다. 플라스틱 포장제품의 재활용원료 사용률이 30% 미만이면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에 t당 200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포장에 재활용원료 의무 함유량 설정을 고려 중이다.

DL케미칼은 5월부터 멀티 레이어 재활용 포장백 685개(약 185톤)를 유럽향 정기 수출물량에 사용할 예정으로 향후 글로벌시장으로 적용을 대폭 확대, 친환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현 DL케미칼 부회장은 “재활용 원료 사용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ESG 선도기업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면서 “DL케미칼은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 및 생산,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 말했다.

DL케미칼은 지난해 12월 세계포장기구(WPO)로부터 D.FINE의 원재료 절감 효과 및 자원 재활용



▲ DL케미칼이 만든 D.FINE 제품 이미지. D.FINE은 회사 측이 3년간 자체 연구를 통해 세계 2번째로 개발한 차세대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제품이다.

를 등 탁월한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2022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를 수상했다. 지난해 5월에 대한민국의 패키징 대전(KOREA STAR AWARDS 2021)에서 D.FINE의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실드에어(SEE)

디지털 포장 브랜드 prismiq™ 출시

차별화된 포장 지원하는 디지털 솔루션 포트폴리오

실드에어(Sealed Air, 이하 SEE)가 디자인 서비스,

디지털 인쇄 및 스마트 포장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갖춘 디지털 포장 브랜드인 프리스믹(prismiq™)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테드 도헤니(Ted Doheny) SEE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디지털 포장과 그래픽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첨단 디지털 인쇄 기술에 기반을 둔 프리스믹은 고객을 위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운영 모두의 비접촉 자동화를 지원하며 포장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한다”고 말했다.

세르지오 펄킨(Sergio Pupkin) SEE 최고 성장 전략 책임자는 “프리스믹은 스마트폰으로 포장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SEETM 상표로 여러 데이터 서명(QR, 바코드, RFID, 재활용 코드, 날짜 및 시간 스탬프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할 수 있어 소비자의 경험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프리스믹은 제품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를 유도해 낭비와 과잉 포장을 없앤다. SEE의 단대단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은 가치 사슬을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패키지별 디지털 아이디(ID)를 생성한다.

SEE는 브랜드 소유자와 연결되는 포장을 디자인한다. 약 200명의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SEE 팀은 전 세계 고객과 협력해 맞춤형 그래픽을 만



▲ 실드에어(SEE), 디지털 포장 브랜드 prismiq™ 출시

들고 새로운 콘셉트를 설계하며 성능 테스트를 수행한다.

SEE 시스템은 단일 주문을 기준으로 여러 디자인을 구현하고 포장별 직렬화 및 디지털화된 코드와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어 고객이 더 빠른 처리 시간과 유연한 주문 수량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SEE 스마트 패키징 및 디자인 담당 이사는 “프리스믹은 윈스톱 및 통합 방식으로 포장을 차별화한다. 제조 작업과 고객의 작업에 디지털 인쇄 기능을 포함해 소비자의 가정에서 포장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E는 가장 최근에 개발한 프리스믹 5540(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고 유연한 디지털 인쇄 시스템)을 포함해 디지털 혁신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 시스템은 유연하고 수축 가능한 재료에 와이드 웹, 고속 처리, 컬러 인쇄(금속 및 투명 잉크 포함) 및 양면 디지털 인쇄를 지원하는 최초의 시스템이다.

동원샘물

페트병 경량화로 연 1,200t 플라스틱 절감

ESG 캠페인 적극적으로 전개

동원F&B가 페트병 경량화로 연 1,200t 플라스틱 절감하고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동원F&B(대표이사 김재욱)가 ‘동원샘물’ 페트병 경량화를 통해 연간 약 1,200t의 플라스틱을 절감하고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고 5월 25일 발표했다. 동원F&B는 약 2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동원샘물 500mL와 2L 제품 페트병의 무게를 각각 15.7%, 8.4% 경량화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

다. 동원샘물 500mL 페트병의 무게는 11.8g으로 업계 최경량 수준이다.

또 동원F&B는 뚜껑의 높이를 낮춰 더 가벼워진 ‘에코캡(eco-cap)’을 도입했으며 라벨의 길이도 20%이상 과감히 줄여 환경보호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00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원F&B가 리뉴얼한 동원샘물의 패키지 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동원샘물 대표 수원지인 경기도 연천의 자연환경을 시각화한 디자인을 페트병에 입체감 있게 구현하고 라벨에도 그려 넣어 동원샘물의 시원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동원F&B는 샘물 업계에서 다양한 ESG 활동으로 지속가능 경영에 앞장서왔다. 2013년 환경부와 페트병 경량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원샘물 500mL 페트병의 무게를 19g에서 14g으로 줄인 바 있다. 또 2020년에는 아이스팩 대신 활용할 수



▲ 동원F&B(대표이사 김재욱)가 ‘동원샘물’ 페트병 경량화를 통해 연간 약 1,200t의 플라스틱을 절감하고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있는 국내 최초의 얼린 샘물 보냉재 ‘동원샘물 프레쉬’를 도입했다. 2021년에는 라벨 없는 친환경 생수 ‘동원샘물 라벨프리’를 출시하기도 했다.

동원F&B는 4월부터 샘물 업계 최초로 국민 건강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챌린지 애플리케이션 ‘물로(mullo)’를 론칭하고 MZ세대와 활발한 소통에 나서고 있다. ‘mullo (물로)’는 매일 2L 물 마시기, 달리기 등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숲 조성 사업, 결식아동 후원 등 환경 및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는 참여형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밖에도 전국 동원샘물 대리점에 페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유니폼을 배포해 현장 임직원들과 함께 ESG 경영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친환경 유니폼은 페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의류로 유니폼 1벌당 14개의 500mL 페페트병이 활용됐다. 또 기아의 전기차 ‘EV6’와 함께 재활용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했다.

동원F&B 관계자는 “이번 동원샘물의 친환경 프로젝트가 제품 개발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ESG 캠페인”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도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더욱 다양한 제품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전주페이퍼

국내 최대 규모 150억 원료 설비 투자

골판지 원료 생산량 증대 및 품질 고도화 추진

전주페이퍼가 골판지 원지 생산량 증대 및 원료 품질 고도화를 위해 원료 공급 설비 투자에 150억 원

을 투자했다. 이로써 전주페이퍼는 최근 1년간 총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골판지 생산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전주페이퍼는 이번 투자로 연간 16만 톤 생산이 가능한 원료 설비 2기를 국내 최대 규모인 50만 톤 규모의 LC Pulper(저농도 펄퍼) 1기로 대체할 수 있게 됐으며, 원료 공급 능력을 약 120만 톤까지 확대하면서 원료 품질 고도화까지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교체 대상 원료 설비는 신문 용지의 원료 공급을 위한 드럼 펄퍼 형태의 설비로, 골판지 원료도 생산 가능하도록 보완해 운용해왔으나 다양한 OCC(골판지 폐지) 활용성 증대 및 원료 품질 향상을 위해 골판지 원료 생산에 최적화된 LC Pulper 설비를 별도 공간에 추가 설치했다.

2기의 원료 공급 설비를 1개의 공급 라인으로 대체하면서 유지 보수 및 운용 비용이 절감, 원가 절감의 추가 효과까지 예상된다. 또 대용량 생산 설비 도입을 통해 원료 생산 능력이 향상되면서 다른 원료 공급 설비의 일시적 트러블이나 유지 보수 시에도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이어갈 수 있게 돼 생산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설비 공간은 원료 또는 제품 보관을 위해 활용하고, 앞으로 추가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설비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태림페이퍼(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플로깅 캠페인 전개

ESG 경영 실천

태림페이퍼(주) 의령공장 임직원은 지난 5월 11일에 의령군청, 사회단체 의령청년회, 의령복지마을 소망의 집 이용자 등 70여명과 함께 의령 서동



▲ 뉴 시즌즈 마켓은 프레스 파스타 포장용기를 페이퍼실 맵 트레이로 변경한다.

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 ‘환경’ 과 ‘건강’ 을 지키는 플로깅(Plogging)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보호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캠페인 활동이다.

태림페이퍼(주) 의령공장 임정우 공장장은 소망의 집 김민정 원장과 후원 협약식을 가지며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기업의 미션을 실천하며 기부금을 후원하는 이 행사가 봉사정신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에서 상생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태림페이퍼는 지난해부터 ESG 경영 실천·사회 공헌활동과 연계한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플로깅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의 참여자 수만큼 기부금을 환산해 각 사업장에 속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삼원갤러리

박상희 · 서지선 · 장희진 그룹전 개최

6월 30일까지 삼원갤러리에서 진행

삼원갤러리는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Pieces

of Space’ 전시회를 통해 박상희, 서지선, 장희진 작가의 3인 그룹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화면 구성과 강렬한 컬러감의 색면으로 스토리 있는 공간을 담아내는 3인의 작품 5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싱그러운 계절, 완연한 봄기운 속에 단순하고 강렬한 컬러감의 공간 구성이 돋보이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반복되는 일상 속 지친 현대인들에게 단순함이 주는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Pieces of Space는 구체적 형태보다 ‘색면’과 ‘공간’, ‘컬러’에 집중한 채 작가가 캔버스 위에서 표현한 시각 예술을 음미할 수 있는 전시다. 힘 있는 색채와 단순한 형태의 색면으로 표현한 화면 구성 위에서 작가가 초대해 세계로 들어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치열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무한한 자유와 힐링을 주는 신비로운 공간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또한 단순하지만 더 면밀하고 풍성한 박상희, 서지선, 장희진 3인의 작품과 함께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함께 그림이 주는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박상희, 서지선, 장희진 작가의 더 많은 작품과 스토리는 삼원특수지 사옥인 군자G타워 5층 삼원갤러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

다.

한편 삼원갤러리는 국내 최대 규모 특수지 전문 기업 삼원특수지(SAMWON PAPER)가 2021년 새로 개관, 운영하는 갤러리로, 국내외 한국 미술의 실험과 확장을 시도하고, 신진 작가 발굴·전시, 다양한 문화 교류에 주력해 한국 미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Korea Pack 2022’ 6월 14일 개막
600개사 3,000개 부스참가
 대한민국패키징대전도 열려

국내 포장산업계의 최대행사인 ‘Korea Pack 2022(국제포장기자재전)’이 6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린다. 한국포장기계협회, 월간포장, 경연전람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600개사가 참가하여 3,000개 부스를 운영한다.



▲ 뉴 시즌스 마켓은 프레스시 파스타 포장용기를 페이퍼실 맵 트레이로 변경한다.

이번 Korea Pack(코리아 팩)의 주요 구성을 살펴보면 1홀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 2~5홀은 포장기계, 재료, 친환경 포장, 제약·화장품 제조기술(Cophex), 화학장치·공정기술(Korea Chem)이 전시되며 동기간 킨텍스 2전시장(7,8홀)에서는 제약, 화장품 제품개발을 위한 ICPI Week(제약·화장품 위크) 전시·컨퍼런스가 열려 포장전시회를 찾는 사용자 업계를 위한 연계되는 산업정보를 제공한다. Korea Pack(코리아 팩) 전시회는 식품, 음료, 제과 제빵,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화학산업 관계자 등 전 산업의 제조공정, 포장기기, 포장재료 및 컨버팅 그리고 포장 이후에 이어지는 물류·유통·자동차 분야의 전체 공급망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위한 혁신적 포장기술, 제품을 직접 보고, 포장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제 무역전시회인 것이다.

올해 6월 Korea Pack(코리아 팩) 전시회가 무엇보다도 반가운 건 코로나19 발생 전 열렸던 2018년도 전시회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전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국내·외 정상급 포장기업의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모두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포장기계 제조업체와 관련 부품 서비스 업체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포장기계 단체인 한국포장기계협회는 이번 코리아팩(Korea Pack)에 71개 회원사들의 출품신청을 지원한다. 올해는 약 7,200㎡(800개 부스)의 전시 공간을 활용하여 최신 포

장기계를 전시하여 식품, 음료, 제약산업에서부터 화장품, 석유화학 및 EOL(End of Line)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포장기계 생산 담당자들에게 적극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반가운 분들이 찾아온다. 이탈리아와 인도는 이번 Korea Pack에 우리나라 포장수요자, 유통, 포장기업에게 자국의 대표적 포장기업을 소개하고, 네트워킹을 위해 국가관(National Pavilion)을 마련한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포장 및 포장기계협회인 UCIMA는 10개사 Delegation을 파견하고, 인도포장기계협회인 IPMMI에서도 13개사가 출품한다. 특히 인도는 세계 제약생산 1위 국가로 우리나라 포장기계 제조사들의 주 수출국가다. 또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료의약품 수출국가로, 동기간 킨텍스 2전시장에서 7홀에서 열리는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Korea Pharm & Bio)에도 원료의약품 등 40개사의 상담부스를 마련한다.

Korea Pack 2022에는 '지속가능한 미래식산업으로 주목받는 패키징 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특별 전시관이 마련된다. 산업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는 우수 포장 발굴을 통해 기업,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패키징대전(Korea Star Awards) 개최와 함께 2022년 수상작 전시코너를 마련한다. 패키징기술센터는 포장산업의 우수기술 및 산업발전 기여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포장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고, 수상작을 포장 사용자, 바이어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에코시대를 맞아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을 조명하는 특별관도 선보인다.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용기·포장, 컨버팅기, 리사이클 기술, 제품이 전시되는 '지속가능 플라스틱 패키징 특별전 & 컨퍼런스'를 전시장 5홀과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관에는 그린플라스틱연합,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을 비롯 한국포장협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등 관련 협회가 후원·참여한다. 특히 그린플라스틱연합에서 마련한 부스공간에는 SKC, 롯데케미칼 등 14개 회원사가 참가하여, 원료 및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고,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도 16개사 회원 및 연합단체가 참가신청을 마쳤다. 그 외에 국내 플라스틱 사출기 제조사인 LS엠트론 등 약 70여 개사가 참가신청을 마쳤다. 특별전과 함께 전시 2~3일차에 플라스틱의 사용량 저감기술, 재사용, 재활용의 용이성 등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해 그린플라스틱연합, 한국포장기술사회, 한국포장학회, 연세대학교, 미디어핸들러 주관으로 관련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번 특별관을 기획한 경연전람회 김길수 전무는 "최근 불어오는 ESG경영은 기업들의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고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바꾸기 쉬운 분야가 바로 포장이다.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은 리얼리티가 있는 ESG경영"이라 밝히면서 "이번 특별전을 통해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라 덧붙였다.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든 시기지만 6만여 명이상의 대규모 집객이 예상되는 이번 행사에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주최 측인 경연전람회에서는 행사장 출입구와 전시홀 전역에 방역을 실시하며 서울, 수도권, 지방관람객을 위하여 무료셔틀 버스를 운영한다.

본 전시회는 업계 간 B2B전시회로, 일반인 참가는 불가하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초청장 소지 혹은 전시회 홈페이지(www.koreapack.org)를 통한 관람객 사전등록 시 무료관람이 가능하다(입장권 1만원). 관람시간은 매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시 마지막 날인 17일(금)은 4시에 폐장한다.